

2026년 7월 23일

Hana FX Daily Letter

원화와 엔화, 당분간 각자의 길로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유가 상승 및 강달러에도 수급 여건과 외인 자금 유입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470~1,483원

■ 미-이란 간 협상 재개 기대가 일부 존재하나, 중동 교전이 지속되며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며, 달러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 속에서도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할 전망. 한편,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다소 누그러지며 원화 약세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소식에 힘입어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경우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70원대 중반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22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4.5원 내린 1,477.5원에 마감**
미국과 이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유가 오름세와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1,482.0원으로 상승 출발. 그러나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등에 하락 전환, 1,48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중동 긴장 지속 우려와 완화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1,470원대 후반으로 하락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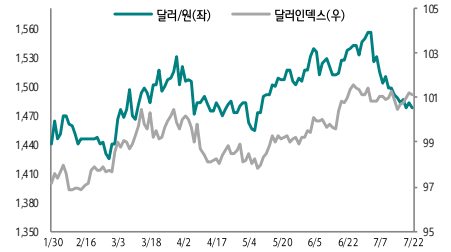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여지를 남기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반영되면서, 달러는 소폭 약세를 나타냄
- (유로-달러) 중동 교전이 지속되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금일 예정된 ECB 회의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부각될 것이라 경계감 속에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
- (달러-엔) BOJ가 엔저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엔화 약세 흐름이 다소 주춤해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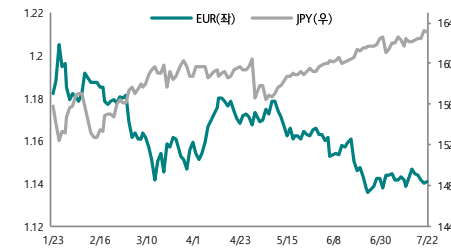
■ 최근 엔화 약세가 심화되며 달러/엔 환율이 약 40년 만에 163엔선을 돌파했음. 이번 엔저 현상은 대내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대외적으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거둬 부담을 가하고 있음. 여기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우려와 글로벌 강달러가 엔화 가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내적으로도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BOJ의 추가 금리인상 지연 우려가 겹치며 엔화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일본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과 고유가 여파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통화 약세가 실물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악순환에 직면한 상황. 이처럼 가파른 엔화 약세는 원화 환율에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양국의 유사한 수출 경합 구조와 엔저로 인한 달러 강세 압력 등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엔화와 동조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 다만, 최근에는 대외 변동성보다 국내 수급 요인이 원화 환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엔화 약세의 파급 효과는 이전보다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81.2	1,484.3	1,476.3	1,476.5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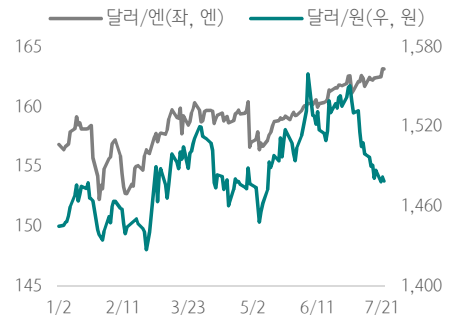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12	163.15	6.7748
전일대비	+0.0014	-0.03	+0.0062
재정환율	1,686.98	906.11	218.43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15	ECB 금리결정	2.40%	2.40%
21:30	미국 신규주택수령 청구건수	211k	208k
21:45	ECB 기자회견		

최근 엔화 및 원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